

회학

昭
和
十
九
年
四
月
十
四
日
(第
三
種
郵
便
物
認
可)
日
(每
月
一
日)
回
發

클이란것은 말을 적으
면 그만이로다。그러나
적는 방법 곧 부호가 한
문같이 무척 거북하고
야 지식을 얻기가 어찌
어렵지 아니하리오。만
일 조선말로 이를 대신
하면 참으로 사반공배
하리라。(주시경)

차 목

「아니」의 格位는 무엇?	鄭烈	(2)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趙憲	(8)
無用의 論을 삼가라	申瑛	(11)
물음과 대답	安冕	(14)
普通學校 朝鮮語 學習指導案	安冕	(15)
조선음성학회의 창립	崔鉉	(16)
用言의 語幹決定에 관한 問題	李光洙	(17)
文學과 文士와 文章	李光洙	(22)
한사람이 땅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돌스트리	(23)
로빈손 무인철도 포류기		(29)
조선어학회 기사		(31)

第三卷 第五號 (六月號)

叻七錢

京城府鍾路二丁目九十一番地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朝鮮語學會規則

第一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稱함

第二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

을 目的함

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爲

하여 左記 部署를 設

經理部

庶務部

會計部

出版部

圖書部

第四條 本會는 京城에 設

但 地方에는 支會를 두기도 함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本會 會員의 推

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但 入會를 許諾한 때에는 入會金 壹

圓을 내어야 함

第六條 本會 會員은 每年 會費 二圓을

負擔함

第七條 本會 會員으로서 一年동안 한번

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但 退會를 願하는이는 幹事長에게 退

會를 請하여야 함

第八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第九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長 一

人과 各部 幹事 一人씩을 設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

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

其他 다른 部に 屬하지 아니한 事

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舉함.

必要를 따라 部員 若干人을 設 때

에는 幹事會에서 選定함

第十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 本會員 三分之一 以上の 出席이

되어야 함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會

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第十一條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

기도 함

第十二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들재 土

曜日) 月例會를 열음

第十三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一、講演會

二、講習會

三、講義錄、學報、研究叢書、調查報告

書、關係 古文獻、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第十四條 本會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

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第十五條 本規則에 未備한것은 幹事會 또

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謝 告

本誌 五月號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休刊하였읍니다。愛讀 諸氏에게 對하여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그렇게 된 理由를 길게 말할 것까지는 없으나、 이것이 결코 무슨 消極的 關係가 있음이 아니요、 앞으로 더욱 經營方針을 更新하려 함에 있었읍니다。

실상은 本誌가 그사이 朝鮮語學會 出版部란 別個의 名稱으로 經營하여왔으나。從今以後로는 本會의 直接 經營으로 옮기어 더욱 步調를 새롭게 하여 나아갈 方針이오니、愛讀 諸氏는 倍前 愛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事務 更迭하는 어금막에 있어서 自然 모든 것에 沉滯된 것도 不少하였으리라 생각하오니、 더욱 罪悚함을 이기지 못하겠읍니다。그리고 또 本誌 發行이 항상 그 期日을 어기게 되어 여러분의 費心을 끼친적도 적지 않은줄 아오니、 이는 現今 出版法에 依한 雜誌로는 避할 수 없는 事情도 없지 아니하오나、 앞으로 더욱 스스로 督勵하여 될수 있는대로 趁期하여 發行하도록 努力하고저 합니다。여러분께서도 時時로 鞭撻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의

格位는 무엇?

鄭烈模

조선말에서 否定的의미를 나타내는 말로는

1. 『아니』……單純否定

2. 『못』……能力否定

(拒否(否定的命令))

6818048

……는데, 남의나라말의 이 種類되는 말과
같은면, 조선말 自體의 質도 알수 있
흥미 있는 일로 아나, 그것은 다른날
기서는 다만

『아니』

하나에 대한 職能을 보아서 그 格位를 想定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本論을 理解하는 것과 아무 關係는 없으나,
이 機會에 注意하여 두고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니』

의 形態 곧 綴字形式을 말하는 것인데, 좀 지나친 생
각 같으나, 一部 初學者를 위하여는 親切한 誘導인 줄
안다. 그래 그 形態를 方便上 單獨形態와 與他形態들

을 세워가지고 볼가 한다. 單獨形態는 다른 말과 어울
리지 아니한 一개의 單語形式을 말한 것이니, 곧

單獨形態 { 基本形態 『아니』
省略形態 『안』 }

를 이름이다. 그런데 世俗에서 는 혹 『안』을 基本形態
로 알고, 『아니』를 『派生形態』로 알아서 『안』로 表
示하는 層이 있는데, 이것은 誤謬이다. 그 理由의 考
證은 여기서는 略한다.

與他形態는 다른 말 곧 『하』와 어울린 形式을 말한
것이니, 곧

與他形態 { 基本形態 (『아니』하)
省略形態 (『안』하)
壓窄形態 (『양』)

를 이름이다. 그런데 世俗에서 는 혹 『양』을 基本形態
로 알고, 『아니』를 『派生形態』로 알아서, 『양』로 表
示하는 層이 있는데, 이것은 誤謬이다. 왜 그러한고 하
니, 가령 『양』이 『하』에 相當한 것이라 하면 『양』이
와 『하』를 連結한 『양』이 『하』는 이것을 풀어 쓴다 하
면 『아니하(양)』가 될 것이니, 결국 의미없는 連結
이다. 그러므로 잘못이다.

그러면 以上으로 形態에 대한 주의는 마감하고, 本
論인 『아니』의 格位를 생각하여 볼가 한다. 그런데 여
기서 말한 格位란 말은 얼른 말하면 品詞性質을 말

함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려는 要旨을 쉽게 말하면 『아니』의 品詞 資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니』는 대체 어떠한 職能을 가진 말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運用되는 말인가.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天 『아니』가*다. …… 『안』가*다. (動詞 위예)
『아니』검*다. …… 『안』검*다. (形容詞 위예)

와 같이 動詞와 形容詞에 先行하여 그 動詞 그 形容詞를 否定하니, 『否定副詞』가 아닐가, 아닌게 아니라 『아니』를 金料奉氏는 『副詞』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예를 보자. 가령

	地	가*지	아니	하*다	(動詞	말*에서)
	검*지	아니	하*다	(形容詞	말*에서)	
甲	사람*이	아니	이다	(名詞	말*에서)	
乙						

와 같은 例에서 보면 乙部의

- 1, 아니 하*다
- 2, 아니 하*다
- 3, 아니 이*다

는 모두 『아니』가 『하*다』 『하*다』 『이다』에 대한 副詞처럼 쓰이었다. 『하*다』 『하*다』가 用言인것은 말할 것 없고, 『이다』가 指定辭이란것에 대하여는 一部의 反對意見이 있다 할지라도, 『이다』 혹은 『다』 그것이

敘述力을 가진것만은 分명한 事實이다. 그러면 『하*다』나 『하*다』나 『이다』나 가 다 가치 敘述力을 가진 점으로 보아 모두가 『用言』이라 할수 있고, 用言을 한 정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아니』는 확실히 副詞 性質을 가진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地例의 甲部인

- 1, 가*지
- 2, 검*지
- 3, 사람*이

와 乙部인

- 1, 아니 하*다
- 2, 아니 하*다
- 3, 아니 이*다

의 連結關係를 볼적에 그 『아니』가 단순한 『副詞』가 아닌것을 알수 있다. 왜 그러한고 하니 가령 成分分析을 행하여 乙部를

- 1, 아니(副詞) 하(動詞) 다(完結詞)
- 2, 아니(副詞) 하(形容詞) 다(完結詞)
- 3, 아니(副詞) 이(指定詞) 다(完結詞)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甲部를 分析하여 얻으니

- 1, 가(動詞) 지(?)
- 2, 검(形容詞) 지(?)
- 3, 사람(名詞) 이(?) (아직 말하지 아니함)

의 지(?)는 과연 무엇인가. 金料奉氏는 이 『지』를 『기』나 마찬가지로 用言의 名詞되게 하는다시 말하면 品詞轉成에 필요한 接尾語라 하였다. 그래서 甲部와 乙部와의 連結을

1. 가지(轉名詞)를 아니 하나다
2. 검지(轉名詞)를 아니 하다

이렇게 보았다. 그러나 1. 에서는 『가지』를 『이』로 되어가지고 『하나다』의 他動詞에 照應되는데, 2. 에서는 『검지를』이 『들을』을 붙이었음에 不關하고, 그 아래 있는 『하』는 他動詞커녕 自動的意味도 없이 1. 에 그냥 形容詞에 照應하는 힘밖에 없다. 그것은 1. 에서는 『하나다』하여 時間表示가 있는데, 2. 에서는 『하다』하여 時間表示를 아니한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들』이 붙었다고 하여서 『가지』 『검지』를 轉名詞이라고 速斷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들』을 붙이고도 名詞 아니 될적이 많다. 가령

1. 넘어(를) 간다.
2. 불러(를) 보아라.

에서 보는 『넘어』 『불러』는 결코 名詞로서 『간다』 『보아라』와 關係를 맺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1. 넘어 간다
2. 불러 보아라

의 動詞連結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들』을 붙인 것이

니, 그러한것을 『強意態』라고 하는데, 『는』 『도』 『만』 따위도 모두 같은 종류에 붙는 것이다. 그러면

1. 가지를 아니 하나다
2. 검지를 아니 하다

의 『들』도 그러한 強意態로 볼 수 있고, 『가지』 『검지』는 名詞가 아니라 動詞의 運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1. 가지
2. 검지

의 『지』는 『도』이고 動詞를 도왔다 하여서 『助動詞』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1. 가지 아니 하나다
- 3 검지 아니 하다

의 『가지』 『검지』는 그대로 한 덩어리가 되어 文의 成分을 이룰 것이다. 그래

- 『아니』가 修飾語(副詞)
『하나다』가 叙述語(動詞)

이라 하면 『가지』는 어떠한 關係를 가진 말일가 『검지』는 어떠한 關係를 가진 말일가. 前例에서처럼 甲部 乙部로 나누어 본다면, 乙部全體를 한 叙述部로 보면 甲部는 그에대한 修飾部일 것이다. 가령 다른 例로

1. 매우 잘 가나다

를 들어 본다면

『매우』

이란 副詞는

『잘 가』다

친척을 修飾하였다고 볼수 있는것과 같다. 그러나

『잘 가』다

에서 『잘』은 『가』다』를 修飾하고

매우 잘 가』다

에서 『매우』는 『잘』과 『가』다』와를 동시에 修飾하는 分的으로 修飾하여

『매우 잘』

하면 『잘』 그것만을 修飾하는것 같지만, 『매우』의 結

定的 意味는 『잘』을 修飾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

듯이

『가』다』

그것에 連結될것을 豫想하고서 『잘』도 修飾하게 된

다. 다시 말하면

『가』다』

그것을 修飾할 豫想 없이는

『매우 잘』

이란 連結은 成立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1. 가지 아니 하』다

2. 검지 아니 하』다

에서 前記 甲部가 乙部를 修飾한다고 볼것에 甲部인

『가지』 『검지』는 乙部의 一部分인 『아니』와의 連結을

豫想하는외에 乙部 다른 一部分인 『하』다』 『하』다』와

의 連結을 豫想하지 아니한다. 前例

『매우 잘』

의 連結이 다시 다른 成分 『가』다』와의 連結을 必

然的으로 요구하는것과 달라서

『가지 아니』

『검지 아니』

의 連結에 있어서는 다른 實質的 成分을 要하지 아니

한다. 『가지 아니』 『검지 아니』身體가 벌써 實質 意

味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 아니』는 — 아니 가』다』

『검지 아니』는 — 아니 검』다』

과 같은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지 아니 하』다

에서 『가지』는 『하』다』와 直接 連結할 豫想을 가지

지 아니한다. 『가지』 『검지』는 直接 『아니』와 一般 『조

定語』와의 必然的 連結을 豫想하고 實現할뿐이다. 그

러므로

가지 아니 하』다

검지 아니 하』다

甲 } 乙

의 甲部와 乙部와의 連絡만이 文法的 連結이고 乙部 内の

아니 하나다
아니 하나다

는 單語 構成이 法則적으로 되었다뿐이지, 格과 格이 連結하는 文法的 連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다』
『하다』

는 『아니다』의 形式的 意味를 附與하여, 動詞 혹은 形容詞의 形式을 갖후어가지고 叙述語 資格이 생기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아니다』를 主로 보면 『하나다』 『하다』가 接尾語 資格밖에 없고, 『하나다』 『하다』를 主로 보면 『아니다』는 接頭語 資格밖에 없다. 그런데 실상은 말의 資格을 判定할적에는 實質意味보다 形式的 意味가 더 重大한 범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다』
『하다』

가 用言의 體格을 갖후었다는 點으로 보아서 主가 되고 『아니다』가 從이 되는것으로 결국 接頭語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아니 먹는다
아니 자나다
아니 하나다

아니 누르다

의 『아니다』들도 副詞가 아니라 接頭辭이다. 그 理由는 위에서 대강 말하였거니와, 要하면 一般 副詞와 性質이 다른 點이 있는 까닭인데, 다시 한결음 나아가 생각하여보면, 副詞처럼 用言에 先行하던 『아니다』가 『지』라는 『도』를 사이에 두어가지고 用言의 뒤로 돌아가 지고,

- 1. 먹지 아니 하나다
- 2. 하지 아니 하나다

와 같이 『하나다』 『하다』를 붙여서 用言의 體格을 갖 후어 가지고 叙述語 役割을 하는데, 『하나다』의 『하』와 『하다』의 『하』가 똑 같은 말인데, 動詞 『먹지』 밑 에서는 動詞 化하여가지고 『하나다』 이렇게 時間을 붙 이고 形容詞 『하다』 밑 에서는 形容詞 化하여가지고 『하 다』 이렇게 時間의 表示 없이 叙述한다. 이와 같이 『하』 가 動詞로 形容詞로 변하는것은 『하』 自身이 그러한 可變性을 가지고 있기때문이기도 하겠지마는, 한편으로 는 『아니다』란 말이 反射性이 있는 까닭인가 한다. 上例 에서는 動詞, 形容詞 밑 에서 쓰인 경우이지마는, 다시 名詞, 밑 에서 쓰인 例를 보면

사람이 아니 이다

와 같이 『아니다』가 『이다』라는 指定詞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마치

그것은 사람 이다

할적의 『사람』이 『이다』를 요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 이다』를 일본말로 번역하면 『ヒトニ アラズ』가 되니 『사람』의 『이』가 『ヒトニ』의 『ニ』와 같은 것으로 밑에 否定語 『아니』를 받는 것으로 보아 『먹지』 『하지』의 『지』와 같은 종류의 『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면 明瞭하다.

1, 먹지* 아니 하 (는) 다

2, 하지* 아니 하 다

3, 사람이* 아니 이 다

의 部分을 け하면 肯定의 뜻만 남고, 部分은 否定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인데, 각각 否定될 말의 品詞 性質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말한 바어니와, 部分에서 部分에서 部分을 け하면 『지』 『지』 『이』 가 남는 것은 그 職能이 全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가 名詞에 先行하여서 否定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에는 多少의 副詞 性質은 있지마는 冠形詞 性質은 없는 까닭이다. 끝



獎産社業實習場

廣告

- △位置 京城府外 轟島面 雌馬場里。
- △目的 理想的 農業者 養成。
- △學科 普通學科 및 農藝學科。
- △施設 蠶絲、園藝、牧畜等 農業 技術을 傳授하는 農場。
- △實習生 年齡 十三歲 以上 十八歲 以下の 身體健全한 男子。
- △學費 每月 十圓 以內。
- △年限 三年 以上 七年 以下。
- △修了後 本社에 採 用 후 就職紹介。

◎改良住宅 放賣

- 京城府 竹添町 一丁目 六五의 三一 垓地 八十八坪、瓦家 二十五間外階下 六間 價格 金 七千 七百 五十圓也
- 京城府 竹添町 六五의 二五 垓地 四十七坪、瓦家 十五間外階下 六間 價格 金 四千 五百圓也

獎産社

京城府 樂園洞 三百番地
電話 光化門 一三一九番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東西醫學報 主筆 趙 憲 泳

한글 統一案이 發表된지 이미 一年이 지났으며, 現代朝鮮의 出版物이라고 할만한 新聞 雜誌 書籍의 거의 다 이것을 實行하고 있으니, 整理에 대한 全民族의 意思의 所在을 充分히 알수 있으며, 한글 統一의 大勢는 이미 決定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一部에서 이것을 妨害 또는 反對하는 分子가 없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協力하여 하루바빠 解決을 지을 問題라고 생각한다. 이 統一案에 反對하는 人物들을 대강 몇가지 部類로 나누어서 그 心理를 檢察하여 보자.

一、保守的 觀念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의 反對하는 理由는 「그런데 안 그래도 다 조신말을 썼는데, 새로 그렇게 어려운 예컨대 안 쓰던 글자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文化가 向上될수록 社會生活에나 個人生活에나 規律을 要하는 것이다. 그런데 從來에 芻蕘인 조신말은 極度로 規律이 混亂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쓸수 없는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바이다. 이와 같이 無條件하고 이권대로 쓰

자고 主張하는 사람은 흡사하 그 家庭 生活에 있어서 食器에 오줌을 누어도 七八十享壽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새 법을 정하여서 까다롭게 글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것과 別로 距離가 멀지 않을것이다.

二、規則을 싫어하는 자 이런 分子는 社會에서나 家庭에서나 여간 難物이 아니니, 規律에 대하여서는 까닭없이 不平을 지기는 사람이다. 清潔하게 닦아놓은 마루에 신을 신은채 突入을 하며, 揮發油 랑크 近處 같은데 가서 자기 生命과 他人의 生命이 危險한대도 不拘하고 禁煙이란 패를 보고도 예사로 담배를 한대 불이려고 썸을 대며, 여덟시에 끝난 朝飯을 열두시에 가서 달라고 하며, 심지어 汽車時間을 늦게 가 가지고 도 「케에기 경치게도 일즉 떠나버렸네. 오라를 지게」 하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안 하면 뱃속이 편중지 않는 이런 奇物에 가까운 친구들이다. 이런 사람은 「사라미」(人의), 「손은」(牛는), 「소네」(手에), 「개아」(犬의) 「쥐을」(鼠를)등 되는대로 芻蕘고도 남이 그르다면 反抗할 餘리들이니, 이런 따위는 問題도 안된다.

三、어렵다는것 이것은 어렵다는 그 사람에게는 相當한 理由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普遍的으로 相當한 理由는 되지 못한다. 習慣은 第二天性이라고 할만큼 힘이 있는것이니, 그릇된것이라도 한번 버릇이 되어놓

으면 그것을 옳게 고치려고 해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不規則한 從來의 朝鮮文學 記述法에 버릇된 사람은 統一案대로 고치기 어려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統一案이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慶尙道 사람이나 平安道 사람이 三十年을 京城에 와있어도 그 말이 서울말과 같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말이 慶尙道말과 平安道말보다 어렵기때문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서울말이 아닌 地方사투리에 벌써 버릇이 들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글은 그들 이미 그릇된 버릇을 가진 사람들만 쓰고 말 글이 아니요, 우리 子孫이 永遠히 쓸 글이며, 새로 배우는 사람에게는 規則의 整理한 統一案이 훨씬 쉬운 것이니, 지금 몇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反對의 理由가 안된다. 가래침을 타구에만 배알고 수지를 쓰러기류에만 넣고 오줌을 똥간에만 누는 것이 習慣만 들이면 그것이 얼마나 勞力이 經濟되고 衛生的이고 氣分이 좋고 外觀에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래침은 의례 하 밀창 열고 락 배알고 코풀어 기동모에 흘쳐두고 담모퉁이에 오줌을 내까리는 사람에게는 그 實行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四、自己意見과 主張에 틀린다는 것 統一案에 자기意見에 맞지 않는 部分이 있다고 反對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으니, 하나는 地

方 사투리로 因한 偏見이요, 하나는 文法學的 主張의 差異다. 그러나 이것은 相當한 反對의 理由가 못되나, 統一이라는 것이 발서 그 內部에 있어서 多種多樣的의 些少한 不滿과 不平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全數의 意見이 꼭 一致하다면, 거기에 統一을 云爲할 必要가 없는 것이니, 각기 意見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면 그 多數가 各自로 케 마음대로 하여서 극도로 混亂狀態가 演出될 것이므로, 그런 瑕가 없게 하기 위하여 統一이 必要한 것이니, 統一이란 것은 利益 또는 主張의 다른 多數의 共同 妥協을 意味하며 妥協에는 반듯이 讓步가 必要한 것인즉,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小異를 버리고 一齊히 이 統一案을 支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五、自己의 主張을 無條件 固執하는 것 자기의 從來에 主張하여온 것을 固執하기 위하여 統一案을 反對하는 分子가 있다. 이런 學者的 良心이 없는 非人格的 行爲를 하는 人物들은 우리가 社會的으로 排擊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六、남의 好惡을 猜忌하는 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줄 알고 民族的 大事業인줄 알수록, 그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하기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요 안하는 것이다) 無條件으로 猜忌의 念을 가지고 統一案에 反對하는 可憎한 分子가 없지 아니하다.

七、妄自尊大하는 無識漢

語法이 무엇인지名詞가 무엇인지 形容詞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토 하나도 못 게 못 외쳐, 「朝鮮語學 人蔘米」 할 친구들이 그거 남 을 攻擊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無視함으로써 자기의 훌륭한것을 表示하려는 어리석은 統一案 反對論者도 없 지 않다.

八、自己的 存在를 表現하기 위하여

統一案이 좋 다 안 좋다 자기의 主張이 정당하다 아니하다 하는 것을 批判할 能力과 誠意도 없이 그거 한번 意見을 提出하여서, 그 存在를 들어내려고 發作的으로 根據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意見을 죽 늘여놓는 사람도 있다. 結言 정당한 修正 意見의 提唱도 當分間 保留하자. 上述한 여러가지 種類의 反對論者가 雜湯이 되어서 그 數가 꽤 많은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그들은 何等の 正 當한 根據도 誠意도 없는 分子들이니, 조금있으면 다

케질로 없어지고 말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데 그들의 反對 方法은 대개 似而非論者로 랄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니, 이때에 適切 妥當한 眞正한 修正 意見을 提唱 하더라도, 그 結果는 此等 似而非 修正論者들에게 좋 은 口實과 武器를 提供하여 徹底한 統一의 時期를 遲 延시키는것이 되고 말것이니, 우선 우리는 全的으로 無 條件으로 統一案을 支持하는것이 正當 統一案을 支持 하는것이 된다.

사람의 하는일이 完전이라는것이 있기 어려우며, 言語學의 말한바와 같이 言語는 生物이라, 조선사람과 함께 조선말의 生命이 있는것이니, 거기에 多少 新陳 代謝가 있을것은 면할수 없어서, 실사 지금에 完전한 統一案이라도 歲月이 가면 修正할 필요가 생길것은 正 當한 일이니, 그때는 우리가 朝鮮語學會와 같이 適當한 修 正을 할 時期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學燈 第十三號에서)

特 告

한글 統一의 途程에, 一方으로 沮害를 敢行하는 少數 反對 分子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主張하는가? 어떠한 術策을 쓰는가? 그 肺肝을 들여다보듯 알고저 하시는분은 本會로 동기 만 하시면 책 한권을 送呈하겠읍니다.

朝鮮語學會

독자의 소리

이欄에는 讀者 諸氏로서 어떤 意見이든지 다 發表할수 있습니다. 提議나 反論이나 무엇이든지 보내시오.

無用의 論을 삼가라

金·蔡兩氏의 提議를 一蹴함

申 瑛 澈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公明正大한 立場에서 世상의 모든 일을 批判하고 明鏡止水의 心境에서 온갖 일을 處理하며 不偏中庸의 德으로써 天下事를 論할지니, 이는 새삼스러이 嗷嗷할바 아니라, 自他가 다 아는바이다. 그러나 世상엔 當연히 그러할 것이 그렇지 않으며 반듯이 그래야 될 일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라. 그러므로 矛盾이 있고 차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喜怒哀樂이 있는 것이다. 더욱 그것이 天下의 일인

대 있어야 우리의 秋毫라도 소홀히 할바 아니다.

지난 一月號에 「字母의 이름」이란 김관남씨의 글과 「新綴字法의 良點과 缺點」이란 蔡廷敏씨의 글을 보고, 吾人은 우리글에 대한 熱誠있는 同志를 얻은것을 남모르게 기뻐한자다.

그러나 兩氏는 아직 우리글과 言語學에 대한 研究가 부족한것 같았다. 吾人도 이에 대해서는 門外漢이라 容喙할 資格도 없는자일지나, 四個月 以後의 오늘날까지 異論이 없을진댄, 兩氏를 위해서라도 不可不한마디 反論을 提出하고자 한다. 김관남氏는 「이름 없는 字母가 없도록 音價와 職能까지 表示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느」 「드」 「르」 「르」... 「이」 「이」 「기」 「프」 「프」 「프」 「배」 「뽕」 「쓰」 「쓰」... 「은」 「은」 「은」 「리」 「을」 「을」 「배」 「음」 「아」 「야」... 「으」 「이」 「애」 「와」 「거」 「의」 「등」을 提議했다. 그理由는 前記한바와 같거니와, 說明에 말

하되 「初學者에게 (教授方法은 別開 題로 하고) 「기」 「기」의 初聲과 中

聲 「ㅏ」와를 ㅅㅍ하라 하면 「가」 「내」 「지」 「을」 불이라 하면 「각」 「이」 「양」 「고」 「가」 「웃」 「하」 「니」 「그」 「의」 「그」 「와」 「ㅏ」 「를」 합하여 「가」 「라」 하고 「가」 「에」 「기」 「그」 「의」 끝소리 「이」 「을」 불여 「각」 「이」 「라」 합이 容易하고 速覺의이며 雙音에도 字形의 構成만 보아 「기」 「雙」 「기」 「역」 「라」 하고 「바」 「등」 은 代名詞로 指稱하는것보다 「기」 「프」 「기」 「바」 「음」 「다」 「정」 「한」 「다」 「면」 「기」 「프」 「기」 「의」 初聲 「고」 「와」 「中」 「聲」 「ㅏ」 「와」 ㅅㅍ하야 「가」 「라」 되고 「바」 「字」 「밑」 「에」 불어 「바」 「우」 「그」 「에」 「(밖」 「에」 「가」 「되」 「어」 「서」 「一」 「律」 「로」 「각」 「기」 「音」 「價」 「를」 「表示」 「하」 「고」 「作用」 「까지」 「를」 「意味」 「하게」 「된다」 「는」 「것」 「이다」.

문노니 氏여! 「기」 「기」 「의」 「의」 初聲은 그러며 「기」 「의」 「가」. 終聲은 「의」 「의」 「인」 「가」. 「기」 「음」 은 單獨으로는 나올수 없다. 우리글의 初中終聲은

다單獨으로 입밖에 내지 못한다.
코나 목속에서만 울린다. 우리글은
우리말을 初中 혹은 初中終聲이 습
해서 내게 된 까닭이다.

「ㄱ」「그으」의 初聲 「그」와 「ㅌ」가
습해서 「가」가 된다 했지만, 어디 「가」
가 되는가. 「기역」의 「기」와 「ㅌ」가
습해서 「기아」가 되는것을 아는 氏
는 「그으」의 「그」와 「ㅌ」가 습해서
는 「그아」가 되는줄 모르는가. 하물
며 「기역」의 初聲은 「기」가 아니며
「그으」의 初聲도 「그」가 아님에
있어서라. 스「시옷」의 終聲은 「으」이
아님에 있어서라. 「고」와 「ㅌ」를 습해
서 「까」가 된다는 氏여! 「기」와 「ㅌ」
를 습해서 「기아」가 된다더니 「고」와
「ㅌ」를 습하면 「고아」가 되지는 않
는가. 「기역」「니은」으로 두어도 그들
의 初聲終聲은 「그으」「느은」할 때의
그것과 똑 같다. 그런즉 「기역」「니
은」의 歴史的 習熟을 그쳐 들것이
며, 「ㄱ」「ㅌ」等은 두개의 닿소리(子
音)로써 된것인즉 한개의 닿소리가

름대로 불려도 좋지 않은가. 다만
「ㄱ」「기역」함보다는 「雙기역」함이 便利
하고 알기 쉬운고로 그리함이 또한
適當하지 않을가. 「기거거」等도 두개
의 닿소리(母音)가 습해서 된것인즉
구래어 이름붙일 必要 없다고 생각
한다.

以上으로써 吾人は 金관남씨의提
議는 無意味하다 생각한다.

다음 「한글 綴字法」의 良點과 缺
點이란 蔡廷敏씨의 글에도 認識不
足の 論이 많으니, 氏의 良點이란
것은 「奇拔한 字形과 神妙한 叶音」
이며 「말의 語幹, 語尾와 濁音, 變
音을 잘 분간하여 理想이 극히 高
尙한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缺
點으로는 「一, 「사자차다라」 五行에
ㅌ ㄱ ㅌ의 合用 淘汰, 二, 「나라아」
三行에 ㅌ ㄱ ㅌ의 混用, 三, 「디
과키의식」의 廢止로 標號가 적은 우
리 글에 이들을 減함은 옳지 못한
다」하고, 「ㅌ」「ㄱ」「ㅌ……」의 淘汰도 遺
憾되는 일인데, 以上の 八行中 廢去

또는 混用으로 말미암아 이력커럭
四百餘字가 自然 減損하게 됨은 매우
아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하였다.

그리하여 氏는 또 「一, 개(犬)에는
수개, 암개. 도야지에는 수도야지, 암
도야지. 닭에는 수닭, 암닭. 二, 이야
기에는 글니야기, 옛니야기, 잎에는
뽕뽕, 솔뽕, 옆에는 메뽕, 집뽕. 三, 연
전(年前) 연말(年末) 하다가 금년(今
年) 명년(明年) 이렇게 여러가지로 變
하여 標號만 抹去한것이 아닌가」한
다. 또 「사기(詐欺) 사기(邪氣) 토인
(超人) 초인(抄引) 천디(天地) 천디
(賤地) 커(己) 더(彼)들도 분간해
야 되지 않겠느냐」하였다.

그러나 一, 의 수개나 암개나 하는
것이 「개」나 「도야지」라는것을 떠나
「개」「도야지」等으로 된다고 이를 「송
개」「암개」等으로 쓰야 될지는 疑問
이며, 統一案은 그쳐 「수개」「암도야
지」等으로 그쳐 쓰도록 했은즉 구래
어 이것도 「송」「암」等으로 안써도
좋을줄 안다.

그 Bull의 「소」를 Oxen(複數)또
 Cattle이라 부르다가 숫소는 Bull 또
 Ox가 되 하되, 암소는 Cow라 하
 고, 말(馬)도 숫말의 a colt 라 하며, 암
 말의 a filly라 하고, 돼야지도 Pig, swine
 (複數)라고 하다가 수도야지는 a boar
 라고 하며, 암토야지는 a sow라고 한
 다는 것을 보면, 「개」 「토야지」 등으로
 도 無妨하다고 본다. 다음 「옛이야기」
 도 「옛이야기」 「집현」 「매현」 「뽕」 「
 솔」 「포」 등으로 無妨하다. 곧 틀림 없
 이 읽을 수 있다. 꽃우에(花上)라 하
 고 「교추에」라고는 틀리지 않으니가.
 三의 「면」 「년」으로 되는 것은 그것
 이 自然이다. 年前이나 年末이니 今
 年 明年이니는 다 漢文이다. 우리말
 이 아닌 다음엔 그에 토를 다는대
 不過한 것이니, 「면」으로 날 때는 「면」
 「년」으로 날 때면 「년」으로 적을 것은

自然이 아닌가, 우리말은 소리글이라
 는 것을 모르니가. 사기(詐欺) 사기
 (邪氣) 등을 분간하기 위해서 廢止 混
 用하는 것을 옹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글
 에 대한 認識不足이다. 그 많은 漢文
 熟語와 同音의 熟語가 그뿐인 줄 아
 는가. 漢文에는 同音異意의 熟語가
 얼마나 될지 모르게 많다. 그러므
 로 要素들 漢文을 廢止하자는 말이
 나며, 그 한말사육으로 制限하자는 말
 이 나오는 것이다.

또 「커」 「더」(彼)를 분간함이 좋다
 했지만, 發音이 다른 것을 그리할 수는
 없다. 우리말이니 달리 쓰면 좋지
 만 할 수 없다. 그러면 배(腹) 배
 (舟) 배(梨)는 다 어떻게 쓰야 되
 는가. 비(雨)와 마당 쓰는 「비」는 어
 떻게 달리 쓰야 되는가. 「커」 「더」라
 할 것이 물론이며 彼도 「커」라 할 것이
 다. 분간하려면 彼를 「그」 또는 「피」
 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또 現在 發
 音하지 않는 글자를 쓸 必要는 없
 다. 아깝지 않다. 漢文 熟語나 또는
 認識不足으로 말미암아 여러 스승의
 巨大한 犧牲과 눈물겨운 熱과 精誠
 으로 된 「마춤법」을 이렇다. 커렸다
 하지 말고 意見을 내려면 言語學의
 礎장이라도 뒤쳐본 뒤에 말할 것인 줄
 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말할 것
 提議할, 더 크나큰 問題가 많음에 不
 拘하고 貴重한 한글의 紙面을 없애
 는 것은 天下의 同志와 가치 슬피하
 는 바이며, 天下에 이와 같이 無用의
 提議나 議論이 두번 없기를 바라며,
 兩氏의 提議는 無意味하다고 一蹴하
 나니, 吾人은 天下 同志와 가치 兩
 氏의 研究가 끝없이 繼續되어 가
 기를 비는 자이다. (五·八)

● 한글 代金은 朝鮮語學會 振替口座 京城一〇〇四四番으로 보내시오.

前 朝鮮語學會出版部の 振替口座를 아직은 써도 무방합니다.

물음과 대답

一, 물음은 한글에 관한 것
에만 그침.
一, 물음은 한번에 셋 이
상은 하지 말일.
一, 책 가운데 있는 것이면
그 책 이름 및 몇째 페
지인 것을 꼭 꼭히 쓸일.

【물음】

一, 「그리하다」, 「그리하
다」, 「그러다」를 말의 실례를 들고,
문법적으로 설명하여 주시오
二, 한문 글자의 속음 처리에 의
지하여

内科는 넷과 또는 내과
地價는 짓가 또는 지가
事件은 샷건 또는 사건
어느것으로 썩야 마땅할지?
三, 아래 말은 다 표준 자격이 있
는지요
사이를 띄다 사이를 떼다
하느니라 하나니라

(진집중)

【대답】

一, 그대가 마춤법 통일
안을 철저히 실행하고자 하오? 비
그리하오. 이것은 「그리하다」의 실례.

은갖 일이나 물건이나 다 과학적이
치에 의지하여야 진리가 될수 있다.
우리글의 정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
것은 「그리하다」의 실례. 「그리다」는
「그리하다」의 줄인말. 이것을 문법적
으로 보면, 「그리하다」는 움직씨(動
詞), 「그리하다」는 어형씨(形容詞)입
니다. 또 「그리하다」를 두개의 낱말
로 썩개어 「그리」를 어찌씨(副詞),
「하다」를 움직씨로 잡는것이 좀더 자
세할것입니다.

二, 이것은 다 사어의 성질을 가
진 말들인데, 「내과, 지가, 사건」보
다 「넷과, 짓가, 샷건」으로 쓰는 편
이 나을것 같습니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 三〇항을 참고하시오.
三, 「사이를 띄다」, 「하나니라」가
표준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윤재)

【물음】

한글 제3권 이월호 二
十五페이지 가운데 「듣고」라 쓰고,
九페이지에는 「듣고」로 썼는데, 어찌
하여 이렇게 다른며, 「듣고」로 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九페이지
「잇섯다. 업시, 짓브지 안켓느냐」와
같이 마춤법에 맞지 아니한것을 왜
쓰십니까. (중앙보이생)

【대답】

끝에서부터 대답하게습니
다. 「잇섯다, 업시, 짓브지 안켓느냐」
는 「잇섯다, 업시,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썩야 마춤법에 맞는것입니다
마는, 이것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쓰는 철자법에 의지하여 쓴것입니다.
그글이 조선어독본 지도례이기 때

문에 부득이 그책의 철자법을 의지
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듣고」도
역시 그 철자법으로 쓰는것입니다.
그리고 「듣고」로 쓰는 까닭은 「듣고,
듣다」 할적에는 二바침이 되고 「들어,
들으니」 할적에는 二바침이 됩니다.
같은 뜻의 말로 二과 二이다 쓰
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것
이 좋다는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호에 쓰겠으니, 그때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普通學校 朝鮮語學習 指導案

이 指導案은 지금으로부터 三年前 原州公立普通學校에 계신 몇분이 特別히 朝鮮語科 教授 研究에 用力하여 그 擔任한 學級에 대하여 각기 指導案을 만들어 研究의 資料를 삼았던 것이다. 이제 여기에 몇분의 것만 실어서 한 參考에 供하고자 한다.

第一學年

朝鮮語學習指導案

安 冕 鎭

一、教材 소

二、要旨 職業教材도 소의 形態 및 効用을 알리고, 소에 對한 愛 護心을 기함과 同時에 이에 關한 用語를 整理하여 文字를 親하는 처음 觀念을 넣어 주는 데 있다.

三、教材研究

一、소에 對한 觀念
소는 농사짓는 집에서 기르는

짐생이다. 생기는는 목은 짧고 몸은 크고 뚱뚱하게 되었는데, 눈은 크고,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다리가 넷이며, 발은 두쪽의 굽으로 되었다. 성질은 매우 순하고, 먹기는 풀이나 여물을 먹는데, 아래웃 턱을 서로 갈아서 먹는다. 그리고 먹은 것을 다시 토하여 새김질을 한다. 농사에 쓰는 소는 코를 뚫어 고삐를 매여서 부리는데, 멍에에 매여서 논과 밭을 갈기도 하고, 길마를 지여서 실기도 하고, 또 수레를 끌기도 한다. 그리고 잡아서는 고기를 먹고 그 외에 뿔이며 털이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소용이 되며, 똥과 오줌은 거름에 쓴다. 농사짓는 소외에 유유만 잔느라고 기르는 소가 있다.

四、補充語

뿔, 굽, 꼬리, 풀, 여물, 코뚜레, 고삐, 멍에, 길마, 암

소, 수소, 황소, 착소, 송아지.

五、插繪

牛의 形態를 알리기 위하여 野原에 섰는 一匹의 황소

六、新字……소. 初聲 人과 中聲 一의 合音.

七、時間配當

第一時間

(1) 牛의 形態 習慣等에 對하여 問答하여 牛의 觀念을 明瞭하게 할것.

(2) 牛의 効用에 對하여 問答하여 職業的 觀念을 넣어준과 同時에 牛에 對한 愛護心을 養할것.

第二時間

(1) 既知言語 發音의 整理를 하여, 發表하는 범을 指導할것.
(2) 「소」의 字 쓰는 범을 指導할것.

八、準備 소의 掛圖. 소의 實物

直觀.

九、教法

第一時間

(1) 소의 實物 直觀 또 掛圖 提
示。

(2) 教師 兒童과 問答하여 소의
觀念을 明確히 할것.
가, 이것이 무엇이나
소을시다.

이것은 무엇이나
별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이나
머리올시다

이것은 무엇이나
꼬리를시다

나, 소는 무엇을 먹느냐
여물을 먹습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
여름에 풀을 먹습니다

다, 소는 무엇에 쓰느냐
발을갈고 짐을 실습니
다
소를 잘 기르려면 어찌하
여야 되겠느냐

(3) 整理 教師 「소」의 글자를 板
書하여 齊讀 四五回。

第二時間

1, 掛圖 提示하여 다음 短話의
發音과 語調를 整理할것.

별, 굽, 꼬리, 풀, 여물, 코뚜
레, 고삐, 멍에, 길마, 암소等

2, 齊讀

板書 「소」 三四回
讀書 「소」 四五回

3, 「소」字 쓰는법 指導

(1) 筆順(배치고, 켜지고, 내
려긋고, 건너긋는다) 畫數 네
획.

部分 名稱(시옷자 밑에「人」
卜자를 쓴다)

(2) 學習帳에 쓰는데 注意할
것.

붓은 右手로 들고 쓸것.
字畫은 바른도록 할것.

(다음은 二學年 朝鮮語學習
指導案)

조선음성학회 창립

현대 과학으로 포네틱(음성학)이 언
어 연구에 기초가 되는것은 세상사
람이 다 아는바어나와, 이제까지 조
신에는 이런 학술단체가 없었음을 크
게 유감으로 여겨 왔던바, 이방면
에 연구가 있는여러분의 발기로 조
신음성학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금년
四月 二十四일에 서울 기독교 청년회
관에서 그 회의 발회식을 하여, 회칙
 통과와 진행방침의 토의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간사 세사람을 뽑고,
사무소는 서울 花洞 一二九번지에 두
기로 하다.

- | | | |
|-------------|-------------|-----|
| 金尙鎔 | 異河澗 | 鄭寅燮 |
| 발기인의
씨명은 | 다음과
같다. | |
| 金尙鎔 | 金善琪 | 金性洙 |
| 金允經 | 朴勝源 | 方鍾鉉 |
| 孫景壽 | 梁柱東 | 李克魯 |
| 李崇寧 | 異河澗 | 李軒求 |
| 鄭寅燮 | 趙容萬 | 崔鉉培 |
| 洪起文 | (가나다
차례) | 咸大勳 |

풀이씨(用言)의 줄기잡기

에(語幹決定) 관한 문제

—五月十一日 本會 月例會 講演抄—

최현배

우리말의 풀이씨(用言)에는 두가지의 조각이 있으나, 하나는 그 풀이씨의 중심관념(中心觀念)을 나타내는 실질적부분(實質的部分)이니, 이를 줄기(語幹)라 하며, 다른 하나는 그 풀이씨의 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부분(形式的部分)이니, 이를 씨끝 또는 줄여씨 끝(語尾)이라 한다. 이를테면 「가다」(往) 「먹다」(食)의 「가」 「먹」은 줄기이요, 「다」는 씨끝(語尾)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씨의 줄기(語幹)는 고정하여 변하지 아니하되, 그 끝(語尾)은 여러가지의 말본의 관계를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지나니, 이를테면

줄기	씨끝
보	다, 오, 아, 는, 르, 니, 면
먹	다, 으, 어, 는, 을, 으, 으면

와 같다. 이와 같이 풀이씨가 그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바뀌어는 것을 끝바꿈(活用)이라 일컫는다.

이 끝바꿈(活用)에는 마침법(終止法), 꺾목법(資格法) 이음법(接續法)의 세가지의 법이 있으나, 이를테면

	끝바꿈			
보(見)	다 오 아	다 오 아	다 오 아	다 오 아
먹(食)	다 으 어	다 으 어	다 으 어	다 으 어
보(見)	다 오 아	다 오 아	다 오 아	다 오 아
먹(食)	다 으 어	다 으 어	다 으 어	다 으 어

에씨와 같다. 곧 마침법(終止法)이란 것은 풀이씨가 임자말(主語)의 풀이(說明)가 되어서 그 월(文)을 마치는 법이요 (보기 아이가 밥을 먹으오), 꺾목법(資格法)이란 것은 풀이씨가 임자말의 풀이가 되어서 그 월을 마치지 아니하고서 그 꺾목(資格)을 바꾸어서, 더러는 어떤(冠形詞)같이 되고, 더러는 이름씨(名詞)같이 되고, 더러는 어찌씨(副詞)같이 되는 법을 이름이니, 「비가 오는 날에 커 애가 왔읍니다」의 오는과 같은 것이다. 이음법(接續法)이란 것은 풀이씨가 임자말의 풀이가 되어서 그 월을 끝내지 아니하고 다른말에 잇는(接續하는) 법을 이름이니, 「비가 오니, 풀이 잘 자라오」의 오니와 같은 것이다.

우에 대장 풀이씨의 줄기(語幹)와 끝(語尾)의 뜻과 그 일함(作用)을 말하여서 이 글월의 허두를 삼은 것이다. 이케 이 글월이 논하고저 하는 문체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당소리로 끝진 줄기를 가진 풀이씨의 말에 어떠한 끝(語尾)이 붙을적에 소리고루기 위하여 그 사이에 「으」가 들어간다. 이를테면

가오, 가면, 가니, 간,

에서는 「으」가 들어가는 일이 없다가,

먹으오, 먹으면, 먹으니, 먹은

에서는 곧 「으」가 더 들어감을 보겠다. 그러면 이러한 「으」를 어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풀이씨의 줄기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이 「으」의 풀이법(說明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갈라 볼 수가 있다.

1. 「으」를 독립한 한낱의 도움줄기(補助語幹)로 보는 법

2. 「으」를 그 우의 씨몸(語體)이나 줄기(語幹)의 조각으로 보는 법

여기에는 또 두가지가 있다. 이케 그 보기로 「잡다」란 말을 가지고 말하건대

(「) 「자브」를 씨몸(語體)이나 줄기(語幹)의 으뜸말(原形)로 보고 「잡다」의 「잡」을 그것의 줄어진 끝으로 보는 법

박승빈(朴勝彬)님의 주장(「자브」는 原段, 「잡」은 原段略音, 「자바」는 變動段이라는)은 외형상(外形上)으로는 이 설과 비슷하나, 그 실상은 같지 아니하다. 곧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 활용(活用)의 진의(眞義)가 이해(理解)되지 못하고 따라 줄기(語幹)와 씨말(語尾)과의 의의의 구별도 언어학적(言語學的)으로 정당히 확립되지 못하였으니 (곧 「자」는 語幹, 「브」는 語尾라 함) 그는 결코 이 견해의 정당한 한 대포자라 할 수 없다.

(「) 「잡」을 줄기의 으뜸말(原形)로 보고, 「잡으시다」의 「잡으」를 그것의 늘어진말(Erweiterte Stamm)로 보는 법이니, 이것은 독일사람 Eckardt가 주장하는 것이다.

3. 「으」를 그 앞의 씨말(이를테면 「니, 면, 모」)이나 도움줄기(이를테면 「시」)에다가 붙여서 (이냐면, 음, 으시), 그 씨말이나 도움줄기의 일부분으로 보는 법.

우에 든 세가지의 풀이법은 각각 상당한 이유와 특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맨끝의 법 곧 「으」를 독립한 한낱의 도움줄기로 보지 아니하고, 또 씨몸(곧 씨줄기)의 한 조각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다만 씨말의 나 도움줄기의 소리를 곁두는 한 조각으로 보는 법

을 취하노니, 그 까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첫재의 풀이법의 장치는 「으」자치가 얼마큼 유리성(游離性)을 가지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없어도 하는 것이니, 이것을 한 독립한 도음줄기도 보면 그 다름질(取扱)에 편리가 있다 할만한 점이다. 그러나 원래 아무 실질적 뜻이 없는 소리에다가 한 독립한 도음줄기의 자격을 허락하여주는 너무 분석적 유희(分析的遊戯) 같은 폐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둘째 풀이법의 첫재 것(「자브」를 줄기의 으뜸팔공 큰본 형식으로 보는 법)은 오늘날 말로써 보더라도 무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 첫재 「잡으니, 잡으면」한다고서 「자브」로써 그 줄기의 으뜸팔로 인정한다면, 다른 이름씨 같은 것도 이와 같이 그 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끝날내(末音節)에 바침 없는 이름씨 「배」 「대추」가 도와 만나서 「배나, 대추나」, 「배로 대추로」로 됴에 대하여 그 끝날내에 바침 있는 이름씨 「감(柿)」 「떡(餅)」이 도와 만나서 「감이나, 떡이나」, 「감으로, 떡으로」로 되나니, 이러한 경우에서도 「가미, 떡기」, 「가브, 떡그」로써 그 이름씨의 으뜸팔(原形)로 잡고, 「감, 떡」은 그 줄어진 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엇보다도 첫재 한가지의 이름씨의 으뜸팔이 도박도박 들쇠(例: 柿 가미, 가브, 餅 떡기, 떡그)으로 될 것이니,

이것이 너무나 불합리한 억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더구나 박승빈(박은)은 풀이씨(用言)의 끝바꿈(活用)을 말하되 「머그」(食)는 原段原音, 「떡」은 原段略音 「머거」는 變動段이라 하니, 이는 단순한 일본 문법에서 동사(動詞)의 활용은 동일한 줄(行)에서 변동한다는 오심음도(五十音圖)를 적용한 활용설(活用說)의 그 어법상의 진의를 이해(理解)하지 못하고, 다만 피상적(皮相的) 관찰에서 단순한 동일행(同一行)에서의 변형이란 형식적 모방을 하여본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원래 어느 나라의 말을 물론하고, 그 풀이씨의 끝바꿈(活用, Conjugation)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음성상(音聲上) 형식상(形式上)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음성상 형식상의 변화가 그 사상 발표의 어법상(語法上) 무스 의의를 가지는 것이니, 이를테면

가 } 그(往)
 카 }
 키 }
 케 }
 크 }
 그 }
 단순한 동일행(同一行)에서의 변형(變形)이 아니라, 그 각각의 변형이 어법상 일정한 무스 의의를 가지어

例	活用形	未然	連用	終止	連體	已然	節命
往	カ	キ	ク	ケ	ケ	ケ	ケ
愛	セ	シ	ス	スル	スレ	セ(ヨ)	

하 같이 된다. 버 ㅁㅇ의 "Talk, go" ㅁ

Root	Past	past Participle	Present participle
(原形)	(過去形)	(過去分詞形)	(現在分詞形)

Talk	Talked	Talked	Talking
------	--------	--------	---------

Go	Went	Gone	(Going)
----	------	------	---------

과 같이 끝바꿈을 한다. — 이러한 보기로써 보더라도 끝바꿈(活用, Conjugation)이란 그치 단순한 어형(語形)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가 어법상 일정한 의의를 가진것임을 깨치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이를테면 上例의 「往ク, 往ク」 「往ケ, 往ケ」 'Talked Talked' 가 形式은 꼭 같이되 그 意義가 다르기때문에 ㅁ 갈래의 끝바꿈꼴(活用形)을 차지하게 됨은 淸히 이 까닭으로 ㅁ 그러한것이다. 이 끝바꿈(活用)의 語法的 ㅁ의 ㅁ를 모르고 ㅁ치 ㅁ단순히 ㅁ면히 ㅁ동일행에서 ㅁ변형의 ㅁ로만 해석하고서,

ㅁ(食)

가가거거고고구구구기기

로 ㅁ점검(點檢)하야, 「ㅁ그(ㅁ)ㅁ거」로써 ㅁ조선말의 ㅁ활용 ㅁ이라 ㅁ할뿐이요, 그 ㅁ각각의 ㅁ꼴 ㅁ그 ㅁ거가 ㅁ어법적 ㅁ으로는 ㅁ하등의 ㅁ의의를 ㅁ가짐을 ㅁ밝히려고도 ㅁ아니하며 또 ㅁ했자 ㅁ할수도 ㅁ없게 ㅁ되었으니, 이는 ㅁ실로 ㅁ일소(一笑)의 ㅁ치밖에 ㅁ없는 ㅁ유치한 ㅁ피상적 ㅁ모방이라 ㅁ할수밖에 ㅁ없는 ㅁ것이다.

ㅁ 더구나 ㅁ만약 ㅁ그의 ㅁ말대로 ㅁ풀어씨에 ㅁ原段原音(ㅁ그), ㅁ原段略音(ㅁ), ㅁ變動段(ㅁ거)의 ㅁ세가지의 ㅁ段形이 ㅁ있다면, ㅁ이름씨에도 ㅁ그와 ㅁ마찬가지의 ㅁ세 ㅁ段이 ㅁ있다 하겠다. ㅁㅁ ㅁ雁의 「기러기」는 ㅁ原段原音, 「기러가」는 ㅁ變動段, 「기러아범」의 「기러」인 ㅁ原段略音이 ㅁ될것이며, 또 ㅁ家の 「집인」의 「지브」는 ㅁ原段, 「집에」의 「지베」는 ㅁ變動段, 「집도 있다」의 「집」은 ㅁ原段略音이라 ㅁ할것이다. ㅁ다시말하자면, ㅁ이름씨에도 ㅁ풀이씨 ㅁ마찬가지의 ㅁ끝바꿈(活用)을 ㅁ인칭하게 ㅁ될터이니, ㅁ이름씨와 ㅁ풀이씨와에 ㅁ한가지의 ㅁ끝바꿈(活用)을 ㅁ풀이함인 ㅁ세제 ㅁ어법학(語法學)에 ㅁ그 ㅁ유레가 ㅁ없는바이다. ㅁ그러나 ㅁ한결음을 ㅁ사양하여 ㅁ그렇다 ㅁ고 ㅁ했자 ㅁ그것이 ㅁ문법을 ㅁ설명함에 ㅁ무슨 ㅁ소용이 ㅁ될가? ㅁ이는 ㅁ말의 ㅁ조리를 ㅁ밝히기보다 ㅁ도리어 ㅁ그 ㅁ조리를 ㅁ어 ㅁ지럽게 ㅁ하는것 ㅁ밖에는 ㅁ안될것이라 ㅁ하노라.

(3) ㅁ들재의 ㅁ풀이법의 ㅁ들재것 「ㅁ잡」을 ㅁ즐기의 ㅁ기본형

「ㅁ잡」은 ㅁ그 ㅁ늘어진 ㅁ형(形)으로 ㅁ보는법 (에는 ㅁ이러한 ㅁ까닭이 ㅁ있을수 ㅁ있다. (이것을 ㅁ주장하는 ㅁ에갈드「ㅁ인」이 ㅁ러한 ㅁ까닭을 ㅁ말하는 ㅁ것은 ㅁ아니다) ㅁ오늘날의 ㅁ말을 ㅁ표준 ㅁ삼아 ㅁ볼것 ㅁ같으면, 「ㅁ먹다」가 ㅁ그 ㅁ으뜸꼴인즉, ㅁ따라「ㅁ먹」이 ㅁ그 ㅁ즐기의 ㅁ으뜸꼴이 ㅁ됨이 ㅁ당연할것이다. ㅁ그러나 ㅁ이것이 ㅁ경우를 ㅁ따라친 ㅁ늘어쳐서 「ㅁ먹」으로 ㅁ된것인즉, 「ㅁ먹이」 또는 「ㅁ먹」로써 ㅁ늘어진 ㅁ즐기(擴張된 ㅁ語幹)로 ㅁ보 ㅁ이 ㅁ옳다는 ㅁ까닭을 ㅁ말할수 ㅁ있다. ㅁ그러나 ㅁ이것과 ㅁ역시

앞의 풀이법에 對한 비평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는 이것도 취할 수 없겠다 하노라.

(4) 우에서 들어 온 모든 풀이법을 버리고 보니, 남은 것은 곧 셋재론의 법(「잡」의 줄기, 「으」는 「으니, 으시」의 한 조각으로 보는 법) 하나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셋재법을 취하노니, 이에 그 까닭을 말하겠노라

(「) 오늘날의 말로써 보면 앞에는 보기말 「잡다」의 줄기의 으뜸말이 「잡」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이제 몇개의 문법가가 새로 입설(立說)하는 바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의 언어의식(言語意識)에 비취어 보더라도 그러함을 알지니, 곧 식자는 누구를 물론하고 반듯이 「잡다, 잡아, 잡으니」로 적는 것은 그 일반적 언어의식의 「잡」으로써 「잡다」의 줄기의 으뜸말로 본다는 것의 직화한 증거이다. 이제 그 줄기(語幹)의 으뜸말이 「자브」임을 주장하야, 그 맞춤법을 「잡다, 자바, 자브니」로 적어야 한다 함은 현대의 일반 언어의식에

「한글」代金은 今年 一月부터 아래와 같이 改定하였사오니, 送金하실 때에 반듯이 이에 注意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 個月 七 錢 三 個月 二十 錢
六 個月 四十 錢 一 個 年 七十五 錢

위반된 이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우리 말에는 바침없는 말과 바침있는 말이 그 알로 다른 데 같은 것을 취할 적에 각각 문법상 특수 의 형식을 취하게 분화(分化)되어 있음은 오늘날 조신말에서의 엄연한 법칙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름씨에 서 바침없는 말 「새」 「나무」가 토씨 「로」를 붙여서 「새로」 「나무로」됨에 대하여, 바침있는 말 「범」 「꽃」은 소리고루는 「으」를 「로」우에 더한 「으로」토씨를 붙여서 「범으로」 「꽃으로」로 되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즉 이와 조응적(照應的)으로 음측씨에서도 바침있는 줄기 「먹」이 그 씨끝의 분화를 따라서 소리고루는 「으」를 붙여서 「먹으니, 먹으면...」으로 되다고 푸는 것이 서로 들어맞는 체계적(體系的) 설명이라 하노라.

(이 문체에 관하여 좀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생 각이 있지마는, 고리는바가 있어서 여기서는 그만두고 불원에 완성되어 나올 나의 「우리말본」으로 밀어노라)

한글殘本

한글 續刊 第一號부터 第九號까지(此中 特輯號 一部만 絶版) 全部 八冊을 特價 三十錢, 今年 一月號부터 四月號까지 四冊은 二十錢에 팝니다. 殘本이 그리 많지 않으니, 賣盡前에 꼭 備置하시오.

文學과 文士와 文章

(1) 李 光 洙

내 말슴을 들으시는이중에는 文學을 지어내시는

이 곧 詩人과 文士——詩歌를 짓는이, 小說을 짓는이, 劇을 짓는이, 其他 옛것이 旅行記, 感想文 等を 짓는이, 요새말로 雜文, 隨筆 等屬을 짓는이, 그리고 方向을 바꾸어서 짓는이와 對立하여 批評文을 짓는이等 이러한 文士도 계실것이요, 또 以上에 말슴한 여러 種類의 文學을 짓지는 아니하시되 詩人 文士가 지어놓은 文學을 보시는이가 계실것입니다. 文學을 지어내는것을 創作이라고 하고, 文學을 보는것을 感賞한다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詩人 文士가 創作해놓은 글——即 作品을 잘 되었네 잘 안 되었네, 어디가 어찌니 안 되었네 하는 글을 쓰는이를 文學批評家 또는 文學評論家라고 합니다. 創作도 하면 兼해서 批評을 하는이도 있고, 創作은 한줄도 아니하고 批評만을 하는이도 있거니와, 이 文學批評家도 文士의 部類에 屬한 存在입니다. 지금 내 말슴을 들으시는이들중에는 文學創作家, 文學批評家, 文學鑑賞家——라기보다 文學을 鑑賞하는 大衆

이 계시거니와, 그 밖에 또 한 階級이 계실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文士가 되어보겠다 하는이들입니다. 學生들중에는 文士가 되어보겠다, 또는 文士가 되어볼가 하는이가 相當히 많아서, 俗談에도 二十 內外에 文士 아닌 青年 없고, 三十 內外에 唯物論者 아닌 사람이 없고, 늙어서 宗敎家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에 말한듯한 이 여러가지 들는이들에게 文學과 文章과 文士에 對한 말슴을 오늘 내일 이들에 아울러서 六十分 동안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處地에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相當히 難堪한 所任입니다.

대체 말 있는 나라 치고 이야기 없는 나라가 없듯이 글 있는 나라 치고 文學 없는 나라는 없읍니다. 文學을 가장 오랜것을 찾자면 支那에 詩經 書經, 印度의 吠다 詩篇, 유대의 舊約聖書等은 다 三千年 以前의 것이요, 西洋 經文學의 始祖라고 하는 호어의 詩며, 이스킬로소,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등의 劇 詩도 二千 五百年前에 생긴 것이요, 朝鮮으로 말하면 眞正한 意味의 朝鮮文學, 朝鮮말로 씨운 朝鮮文學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吏讀로 적힌 新羅의 鄉歌가 始祖나, 이것도 거의 一千 三百年 以前에 遡及할수 있는것입니다.

文學의 發生學的 또는 胎生學的 根源을 찾으면 詩나 노래는 民謡에서 小説은 이야기에 劇은 놀이에 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은 詩歌의 起源이 宗教에 있다고도 하지마는, 宗教에서 神에게 케 사를 드릴 때에 詩歌를 쓰게 된 것이, 그 또 起源이 民謡에서라고 보는 것이 正當할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다고 팔을 내어두르고, 좋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좋던 것이 잊히지를 아니하야,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좋던 이야기를 한바탕(發表의 本能 表現의 本能)하자니 그 좋던 光景을 그리고, 좋을 때에 자기가 지른 소리, 팔다리를 내어두르던 모양을 한번 다시 해볼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그 지른 소리는 詩歌가 되고 音樂이 되고 그 팔다리를 내어두른 것은 舞踊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때에 自己가 느낀바와 같은 느낌——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놀람이든지, 웃음음이든지, 또 이런 여러가지 感情이 섞인 것이든지——를 일으키기 爲하야 그때 光景을 線과 彩色으로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말로 하면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글로 쓰면 小説도 되고 詩도 되고 劇도 되고 紀行文도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文學뿐만 아니라 모든 藝術의 發生學的 起源을 이만큼 想像하면 큰 잘못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잠간 사람이란 게가 느긴바——적게 말고 크게 느긴바를 남에게 고대로 傳하고 싶은 本能的 慾望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藝術論에서 「藝術이란 一種의 말이어서 우리가 스스로 느긴바를 同胞에게 傳하는 方便이라」고 定義하였습니다. 藝術은 一種의 말이라고 한 그 말이란 말이 석 재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바를 말을 通해서 同胞에게 傳達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우리의 知的活動인 觀念은 보통말로 다른 사람에게 傳達한다고 하지마는, 우리의 情이 받는 感激即 느김은 藝術이라는 特別한 말로써 傳達한다는 말이외다. 아까 든 例中에 어떤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팔다리를 내어두른 것은 情의 感激即 느김인데, 이 사람이 느김을 다른 사람에게 고대로 傳하려면 보통말로 아니되고 藝術이라는 特別한 말의 形式을 빌어가지고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文學이란 무엇인가. 나는 여기 톨스토이의 藝術의 定義를 그냥 借用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슴해가는 동안에 톨스토이의 定義에다가 한가지 添付함이 있으려고 합니다. 實際論에 들어가서 말슴하기로 합니다. 첫재로 作家——即 詩人이나 文士는 何 글을 짓나, 더 좁혀 말슴하면 何 文學를 짓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렵니다.

實際에 있어서 오늘날 文士들이 文學的作品——다른 藝術品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을 짓는다는 여러가지 動機가 있습니다。그중에서 生活費를 爲하여 原稿料를 爲하여 即 돈을 爲하여서 作品을 짓는 境遇가 相當히 많은데, 이것은 作家에 있어서 큰 矛盾이요 큰 苦痛입니다。먹을것은 벌어야 하겠고 그러자면 原稿를 사줄 新聞社나 雜誌社나 冊肆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겠는데, 新聞社나 雜誌社에서 자기네 商品이 잘 팔리기 爲하여서 文學을 실는 것이어서 文學自身을 爲하여서 실는 것은 아니니까。作者에게 여러가지 注文과 制限을 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러면 作家 即 詩人이나 文士는 新聞이나 雜誌 編輯人들의 이 注文과 制限——막말로 하면 命令에 屈服하여야만 筆값을 벌게 됩니다。여기 作家의 藝術的 良心的 歪曲이 있고 墮落이 있고 따라서 藝術의 萎縮과 枯死가 있는 것입니다。藝術家에게 파드르로이 必要한 것이 이때문입니다。

그런데 理想的으로 볼 때에는——文學 다른 藝術도 그렇습니다마는 文學을 짓는 活動은 구두장수가 구두를 짓거나 代書人의 訴狀을 쓰는 것과 같이 돈을 바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種類의 것입니다。돈뿐 아니라 大衆의 稱讚 即 名譽라든지 어떤 權力者의 稱讚 이라든지 또는 其他 어떠한 報酬도 바라서는 아니

될 性質의 것입니다。마치 宗教家가 돈의 報酬를 바라거나 聽衆의 稱讚을 바라고 說教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고 하면 文學이란 다른 藝術도 그러하지마는 우리의 生命이, 또는 靈이 느낀바가 있을 때에, 그는 긴바가 대단히 큰 것이어서 安만하여도 一般 人類에게 千萬代 後孫에게까지라도, 地球 말고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에까지라도 아니 傳하고는 참을 수가 없는 一種의 強迫感을 느낄 때에만 지을 것이기때문입니다。文章의 技術을 練習하기 爲하여 習作하는 것이야 問題도 삼을 것이 없지마는, 정말 作品을 世上에 發表한다는 것은 마치 釋迦世尊의 法華會의 大說法을 하 시거나 예수께서 山上의 大寶訓을 하실 때와 같은 嚴肅한 態度를 가질 것이 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 이처럼 重要하고 그 느낀것을 남에게 傳하는 일——即 藝術活動이 이처럼 重要的가 하고 反問하시는이가 제실듯 합니다。聖嘆의 말과 같이 藝術을 한 消趣法 即 消日거리, 심심과 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反問하시는 것도 容或無怪입니다。事實上 오늘날 우리는 文學이란 것을 이만큼 생각하는 傾向이 많고 또 文學 自體로부터라도 그런 대접——食後에 먹는 담배 한대, 코피 한 잔쯤의 대접을 받아서 쓴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實相으로 말하면 우리가 느낀다는 情
 的 生活은 우리가 안다는 知的 生活보다 더 크고 깊
 고 높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톤의 萬有引力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相對性原理라든지 또 더 實際方面으로
 보면 알의 水蒸氣, 에디슨의 電氣, 마르코니의 無線
 電信等 人類의 知力의 最高한 產物들은 眞실로 人
 類에게 福利를 주는 것이요 全宇宙 生物界를 통틀어서
 내어놓을만한 자랑거리지마는, 이런것은 오히려 없고
 수도 살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情意 方面의 所産인
 宗教, 藝術——거기서 나온 風俗, 習慣, 禮拜, 道德, 人
 格, 사랑, 公경, 克己, 慈悲, 謙遜, 참음, 용서——이러
 한 訓練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면 文學이나 다른 藝術도 이른바 勸善懲惡을
 目標로 해서 그러냐 하면 그럴것이 아닙니다. 文學
 뿐 아니라, 宗教도 勸善懲惡이라는것은 社會的으로,
 客觀的 觀點에서 본 效果이지, 宗教 自體로 보면 그
 것이 옳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마음에 맞고 그렇게
 해야만 마음에 洽足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
 는것이, 意識的으로 方便的으로 善을 행하고 惡을 避
 할 때에는 별사 宗教가 아니고 一種 功利的 行爲입
 니다. 宗教 行爲보다 수없이 낮은 行爲입니다.
 文學도 그와 같아서 舊約聖經의 다윗왕의 詩를 읽
 으면 우리 그가 어떻게 여호와라는 神에게 對해서

虔虔, 忠誠, 歸依, 感謝, 그리고 有時乎 恐怖를 느낀
 것을 볼수 있거니와, 이러한 感情을 좋은 文章을 (이
 文章이란 말을 記憶하십시오) 여서 그것을 읽는 사
 람에게 비록 그 읽는 瞬間에만이라도 그가 經驗한
 대단히 價値가 높은 感情을 經驗하게 하는것인데,
 여기서 大원의 詩篇의 文學的 效果는 끝이 나는것
 이요, 따라서 그 讀者에게 일으키는 道德的 影響은
 間接이요 派生的인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山에 오르
 면 平素에 느끼지 못하던 崇高라든지, 偉大라든지,
 환하다든지, 어마어마라든지, 으리으리라든지 하는
 감을 받거니와, 우리는 이 느낌을 얻기 爲하여 힘드는
 줄을 모르고 山에 오르는것입니다. 만일 그러한느
 낄이 아니 되느냐. (續)

春園 李光洙氏 著

小説 愼

四六判 八百頁
 定價 二圓
 送料 二十四錢

일즉東亞日報紙上에連載되어 滿天下 讀書家
 의 心琴을 울리던 現 朝鮮文壇의 代表的 傑作
 이다. 最近 著者의 努力은 오로지 이 小説에
 부어 朝鮮의 情緒를 빈틈없이 揭露어 놓은것
 이 이 「愼」의 內容이다.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한 글
바루 | **잡아** | **쓰기**
익 힘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때
 자마다
 후어서
 시오. 보

**한 사람이 땅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下의 一)
틀스도이 **지음**

四

학분이 자리에 누웠으나, 암만하
 야도 잠이 들지 아니한다. 배일이
 걱정이 되어 못 견디겠다.
 「할수잇는대로 만히 거르리라. 무
 어 하로 삼십 오마일쯤야 괴여도
 가지... 게다가 지금은 일년중 제일
 해가 긴 때로다... 삼십 오마일이

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될꼬
 이 일 더 일 생각하나 간죽, 발
 서 자기의 경륜이 아즉 성취한듯
 한 생각이 나서 웃음이 절로 난
 다. ...: 이리하여 그가 원밤 잠
 들지 못하다가 새벽머리에 가서 잠
 간 눈만 붙쳤다.
 아즉 밤이 훨씬 밝기전에 학분
 이 눈을 뜨고, 즉시 일어나서 준비
 를 시작하였다. 그것이 다 됴,
 하인과 작반하야 함께 수레를 타
 고 광이를 들고 그 곳 사람으로
 터부러 촌중 진산에 올라갔다. 거
 기는 멀서 두령의 와 잇다.
 두령이 사면을 둘러보고,
 「웃더하오. 이것이 다 우리
 이오. 보시난바와 갖치 더편쪽은

도 보이지 아니하지오... 웃더하오.
 당신이 바라난 곳을 가리시오」
 학분이 사면을 둘러보고 눈이 등
 그랬다. 일망무체한 넓은 들이다.
 그런데 목초가 사람의 길이 넘게
 길게 작랐다.
 이 때 두령이 모자를 벗고,
 「자, 여기 포를 하시오... 예가
 쉼나난 침이오... 그러니 쉼까지
 이리로 당신이 돌아오셔야 하오...
 : 이 중 당신이 거르신 동안은 당
 신것이 됴네다...」
 그래서 학분이 품에서 돈을 쏘고
 내어서 두령의 모자에 꽂고, 먹을
 것 부대와 물통을 메고, 한편 손
 에 광이를 들렸다.
 「그래 어나편으로 갈꼬」

생각하고, 「위천 해 드는 편으로 가
보자」 하고, 법 드고 한 거름이라도 얼
는 갈러인데 하고 해 드기를 기다
린다. 그 때 그의 용기는 완연히 멧
백마일이라도 담과 활똥하다.
이리 하난중에 태양의 광천이 환
하게 데일 광천을 빗치매, 그가 손
에 든 광이를 어깨에 메고,
「자 일분이라도 지체하여서는 안
이 되겠다. 해 퍼지기 천이 한참이다」
하고 산을 올라갔다. 처음인고로
발 때 놓는 세 못난 것이 가 비압다.
일마일쯤 가서는 학본이 메인 광
이로 첫 구멍을 뚫다. 다 파고는 또
나갔다. 또 일마일쯤 가서는 또 구
멍을 뚫다. 차차 이 모양으로 구
멍을 파면서 나갔다.

그가 열는 고개를 둘러보니, 해
뜨들 때 떠난 산은 겨우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또 지금 모양으로
걸어나 갔다. 이리 하난중 점점 몸이
더워가 난고로 두루막이를 벗어 억
개에 메고 또 걸어나 갔다.
또 또 잠시 가다가 태양을 보즉 해
가 꼭 아 침 때 되었다.
「흥흥, 벌써 하로의 사분지일을
걸어왔구... 그러나 아직도 남은
편이 만흔니 지금부터 도라갈 것 잇
나... 옷 젖던지 신이나 벗고 아 찻
밤이나 먹을까」
하고, 녀에 잇는 나무 뿌리에 걸
러 앉아서, 신을 벗고 쉬면서 아 찻
밤을 먹는다.
「다리는 아즉도 피핑하다」

하고 스사로 케 발을 두다려 본
다.
여기서 한 다섯 구멍만 파고 기
기서 좌편을 도라쳐자, 이리케 기
름진 땅을 여기저기서 도라쳐기는
아깝다. 더 나가서 무척 땅을 차
지하지 아니하면 똥을 못 누게
또 또 그가 뒤를 도라다 보았다. 산
이 이썩에는 머리만 눈에 드러온다.
좀 쉬고서 그가 일어서서,
「그럼, 가볼까」
고 혼잣말.
「아즉 얼마 동안은 똑똑 바로만 가
자」
나간다 나간다. 학본이 천 모양으
로 구멍을 파면서 똑똑 바로 나갔
다.

먹지도 ^{아니} 안이하고 마시지도 ^{아니} 안이
 하고 그치 지사위한이다. 그래도 좀
 더 나가다가 그만 좌편으로 ^뺏 뺏난
 편이 ^종 좋겠 ^다 하야 길을 좌로 돌
 려 ^다 이 ^때 때가 ^되 되주 ^태 태양이 ^볼 볼
 녀 ^다 이 ^때 때가 ^되 되주 ^태 태양이 ^볼 볼
 치 ^나 나리 ^조 조여 ^쳐 쳐 ^더 더웁기 ^한 한량 ^없 없다.
 이 ^리 리하 ^난 난중에 ^학 학본이 ^조 조곰 ^조 조곰 ^피 피
 곤 ^해 해온다. 그런데 ^해 해를 ^본 본주 ^꼭 꼭 ^침 침
 심 ^해 해라, 이것 ^다 다행이라고.
 「침삼밤 ^써 써니 ^좀 좀 ^쉬 쉬자」
 하고 ^거 거 ^기 기 ^쳐 쳐 ^쉬 쉬었다. ^떡 떡을 ^먹 먹고 ^볼 볼
 을 ^마 마 ^섯 섯다. 그러나 ^조 조 ^곰 곰도 ^용 용 ^기 기 ^가 가
 안 ^이 이 ^난 난다.
 「응 ^매 매우 ^곤 곤 ^하 하 ^얏 얏고나」
 생각하고 ^좀 좀 ^누 누 ^어 어 ^볼 볼 ^외 외 ^생 생 ^각 각 ^하 하 ^얏 얏스
 나, ^누 누 ^엇 엇 ^다 다 ^가 가 ^잠 잠 ^이 이 ^들 들 ^면 면 ^큰 큰 ^일 일 ^이 이 ^라 라
 하야 ^늘 늘 ^지 지 ^는 는 ^아 아 ^니 니 ^하 하 ^얏 얏다. ^다 다 ^시 시

「좀 더 쉬고」
 생각하고 ^얼 얼 ^마 마 ^동 동 ^안 안 ^더 더 ^쉬 쉬 ^고 고 ^쳐 쳐 ^이 이 ^일 일
 어 ^섯 섯다. ^처 처 ^음 음 ^에 에 ^는 는 ^것 것 ^기 기 ^에 에 ^그 그 ^러 러 ^케 케 ^어 어
 려 ^지 지 ^아 아 ^니 니 ^하 하 ^얏 얏스나, ^차 차 ^차 차 ^발 발 ^이 이 ^무 무
 럽 ^지 지 ^아 아 ^니 니 ^하 하 ^얏 얏스나, ^차 차 ^차 차 ^발 발 ^이 이 ^무 무
 거 ^워 워 ^가 가 ^쳐 쳐 ^아 아 ^모 모 ^리 리 ^케 케 ^할 할 ^수 수 ^가 가 ^업 업 ^시 시 ^되 되
 앳 ^다 , ^그 그 ^뿐 뿐 ^아 아 ^니 니 ^라 라 ^해 해 ^쪼 쪼 ^이 이 ^난 난 ^형 형
 세 ^가 가 ^침 침 ^침 침 ^맹 맹 ^렬 렬 ^하 하 ^야 야 ^감 감 ^{으로} 으로 ^더 더 ^욱 윣 ^피 피
 곤 ^하 하 ^야 야 ^쳐 쳐,
 「이 ^래 래 ^쳐 쳐 ^는 는 ^아 아 ^니 니 ^되 되 ^겟 겟」 ^고 고 ^생 생 ^각 각 ^하 하
 고 ^또 또 ^얼 얼 ^는 는 ^가 가 ^지 지 ^아 아 ^니 니 ^하 하 ^면 면 ^큰 큰 ^일 일
 이 ^나 나 ^난 난 ^고 고 ^나 나 「생 ^각 각 ^하 하 ^얏 얏다.
 그 ^래 래 ^쳐 쳐 ^학 학 ^본 본 ^이 이 ^발 발 ^을 을 ^질 질 ^질 질 ^살 살 ^면 면
 처 ^가 가 ^난 난 ^데 , ^더 더 ^욱 윣 ^피 피 ^곤 곤 ^이 이 ^심 심 ^한 한 ^고 고 ^로 로
 자 ^그 그 ^만 만 ^여 여 ^기 기 ^쳐 쳐 ^뚝 뚝 ^뚝 뚝 ^바 바 ^로 로 ^그 그 ^산 산
 으 ^로 로 ^돌 돌 ^아 아 ^도 도 ^라 라 ^가 가 ^자 자 ^고 고 ^생 생 ^각 각 ^하 하 ^얏 얏다.
 이 ^때 때 ^해 해 ^는 는 ^더 더 ^욱 윣 ^더 더 ^욱 윣 ^나 나 ^리 리 ^쪼 쪼 ^여 여
 것 ^기 기 ^는 는 ^고 고 ^사 사 ^하 하 ^고 고 ^기 기 ^도 도 ^어 어 ^렵 렵

게 ^되 되 ^얏 얏다. 그러나 ^만 만 ^일 일 ^해 해 ^지 지 ^기 기
 까 ^지 지 ^그 그 ^리 리 ^도 도 ^라 라 ^가 가 ^지 지 ^못 못 ^하 하 ^면 면 ^오 오
 날 ^늘 늘 ^아 아 ^참 참 ^에 에 ^두 두 ^령 령 ^에 에 ^계 계 ^준 준 ^돈 돈 ^은 은 ^본 본
 연 ^히 히 ^일 일 ^허 허 ^바 바 ^리 리 ^고 고 ^말 말 ^일 일 ^은 은 ^생 생 ^각 각 ^한 한
 즉 ^마 마 ^암 암 ^이 이 ^여 여 ^간 간 ^번 번 ^되 되 ^하 하 ^지 지 ^아 아 ^니 니 ^하 하
 다. ^인 인 ^케 케 ^낼 낼 ^수 수 ^잇 잇 ^슬 슬 ^대 대 ^로 로 ^는 는 ^용 용 ^기 기 ^를 를
 분 ^발 발 ^하 하 ^라 라 ^고 고 ^케 케 ^스 스 ^사 사 ^로 로 ^격 격 ^려 려 ^하 하 ^면 면 ^쳐 쳐,
 그 ^산 산 ^을 을 ^향 향 ^하 하 ^야 야 ^일 일 ^직 직 ^천 천 ^{으로} 으로 ^다 다 ^라 라
 난 ^다 .
 이 ^때 때 ^해 해 ^는 는 ^임 임 ^의 의 ^치 치 ^{으로} 으로 ^떨 떨 ^어 어
 난 ^고 고 ^로 , ^학 학 ^본 본 ^이 이 ^더 더 ^욱 윣 ^마 마 ^암 암 ^이 이 ^초 초 ^조 조
 하야 ^거 거 ^름 림 ^을 을 ^재 재 ^촉 촉 ^한 한 ^다 . (또 ^잇 잇 ^소 소)



로빈손
절도 표류기 (三)

신장 이하 여러 사람이 우리들을 매우 간독하게 대접하고, 돈도 조금 받지 아니하며, 어떻게 생각하였든지 나의 배와 주리를 팔라 하는지라. 배는 아무리하여도 좋으나, 주리란 높은 오랜동안 충실하게 복사한것을 이케 돈을 받고 그 자유를 팔음은 마음에 매우 미안한고로 주키주키하였더니, 신장이 매우 청성스럽게 요구하고 또 그 아이가 예수교 신자면 십년후에는 양민을 만들어 주겠다고 굳게 맹세하므로, 마음이 돌려 그만 그 아이를 팔았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하여 케가 그 아이의 자유를 팔았는고 하여 거상 후회하였읍니다.

그 뒤에 나는 뿌리쉴에서 사랑을 재배하여 볼수년에 상당하게 재산을 이루었읍니다. 대개 사람이란것은 재물이 모이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지

는대로 그대도 여러가지 욕심이 생기는 범이라. 나도 역시 허욕에 띄워서 여러가지 나패를 보았읍니다.

뿌리쉴에 있는 동안 사년에 나는 여러가지 장사속을 배웠읍니다. 어느 때에 내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귀야나 항해의 이야기며 거기서 무역하기 쉬운 일이며 또 노예들이 많이 있는것을 이야기하였더니, 그 이른날 여러사람이 와서 귀야나에 가서 무역도 하고싶고 또 노예도 사오고 싶으니, 자네가 그 감동을 하지 아니하랴나 하는지라. 이때 나도 또한 속에 당기며 곧 허락하고, 내가 없는 동안 일은 이웃사람에게 부탁하고, 일천 구백 오십 구년 구월 일 일에 귀야나를 향하고 출발하였는데, 그날이 마침 팔년전에 양친의 슬하를 떠나던 날인고로, 나는 이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자연 이상하였읍니다.

이번 항해는 어찌 더운지 견딜수가 없었읍니다. 꼭 십이일동안을 동

북방을 향하여 라인이란 곳으로 배질하는데, 도중에서 여러번 폭풍을 만났으나, 그러나 과친할 지경은 한번도 당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십삼일만에 신장이 지남침을 살펴보고, 배가 북위 십삼도 아프리카 근방에 있는것을 알고 혹자는 귀야나로 바루가자키니, 혹자는 뿌리쉴의 북방 오리노코강으로 위천 가자키니 하여 공론이 불일하다가, 그때에 배의 한모가 새는고로 쉬인도 어느 섬에 가서 고치기로 하고, 배를 그리로 향하더니, 그때부터 처음 당하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서편으로만 불려달아났읍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무역은 고사하고 사람 잡아먹는 야만인이 사는 지방에 포착하거나 말았으면 하여, 이것만 빌고서 있었읍니다. 그리하더니, 어느날 아침에「육지 육지!」라고 누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뛰어 일어나 갑판에 올라가 보즉, 배가 벌써 모래바닥에 닿았는데, 이럭저럭 배가 여기저기 부

되지니, 어찌 되려고 이리하나 하여
맏이 다 플렸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본즉, 하는수없
이 우리들의 종신 한척을 풀어나려
가지고 하느님이 살려주시기만 바라
고 언덕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마음
은 벌써 다 죽었으나, 그래도 용기
를 가다듬어 죽을 힘을 다 들며 노
를 켜어 활 두바탕 동안이나 청신
없이 갓읍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땅
이 더지는듯한 광하는 소리가 나더
니만 우리들이 라고 있던 배가 그
만 큰 물결에 깨졌습니다. 배와 함
께 물에 빠졌을 때에 나의 마음은 무
엇이라고 형용할 말씀이 없고, 그 커
징신없이 물에 등실등실 떠서 물결
에 채어 반사반생으로 언덕에 다다
랐으나, 미처 달아나기도 전에 뒤를
대어 들어온 물결이 숨도 쉴 틈 없
이 할퀴어가 그 커터버터버하더니,
그리하는중에, 발끝에 거치는 것이 있
는듯한고로, 발끝을 찢더니 땅에
가 닿는지라, 이어 금시에 생기가 나

서 바위를 엉기어 올라가, 비틀비틀
하면서 물이 나지 않는 곳까지 이
르렀읍니다. 인하여 해변으로 이리저
리 손을 두르고 다니면서
「하느님께옵서 어찌하여 나를 육
지를 밟게 하셨노」
하여 케철도 감사하였읍니다. 이때 해
안에는 모자며 양화가 두서넛 떠있
더이다.

잠간있다가 우연히 여기는 어떠한
곳이고 하고 본즉, 소름이 끼치지 아
놓지 못하니, 웨 그러냐하면 입을 것
뉘를것 먹을것 마실것 다 없이 딱
혼자 생소한 곳에 온것을 생각함이
라. 이를 생각하고는 어찌할줄을 몰
라 미친놈 모양으로 얼없이 이리저
리 왔다갔다하면서 여케로 잊으려하
였읍니다.

이러커럭 해가 커문고로 못된 짐
승이나 와서는 할수없다 하고, 큰 나
무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자
고, 이른날 아침에 잠을 깨어본즉,
어케 깨어진 배가 물에 채어 육지

누깝게 떠있는지라. 이것을 보고 급
히배에가 장차소용될 물건들을 운컨
해오리라 하여, 가서 배 위에서 늘어
진 줄을 붙들고 갑판에 올라가 보니,
뱃속은 말끔 물이나 그대로 여기저
기 차차 양식과 과자와 밀떡과 조
총과 육혈포와 화약 등물들을 의복에
다 차서 들어본즉, 여간 무거운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육지에 올릴고 하
여 한참생각하다가, 한 재고를 내어
뚫대며 상앗대 등속으로 떼를 매어
그위에 실고 부러진 막대로 물을 켜
어 겨우 육지까지 올렸읍니다. 이것
커것 하는 동안에 또 밤이 오니,
이에 나뭇등걸을 모아서 집터를 골
라서 명색이 집이라고 헛간을 조그
마하게 지은 뒤에 이곳이 연륙인지
절도인지 살펴볼차로 옆에 있는 등성
이에 올라가서 사면팔방을 다 두루
본즉 아마 이곳은 섬이요, 별도로 사
는 사람이 없는듯하더이다.

이른날 또 배에 가서 틈 때때등
목공 기구와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을 운컨해오고, 이로부리는 날마다 두고 이렇게 나르기를 열이틀 동안 안을 하여 꽤 많이 가져다 두었더니, 열 사흘되던 날에는 일어나 본즉, 지난날에 폭풍이 일어난 듯하여 배가 어디로 갔는지 형영이 없어졌더라. 일이 이렇게 되어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지 못하게 되었은즉, 좋은 땅을 골라 집 하나를 짓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데 집터로 말하면 첫째는 땅이 고조하고 생새가 솟아 나오는 곳이라야 할 것이요, 둘째는 태양의 염렬을 피하기에 형편이 좋은 곳이라야 할 것이요, 셋째는 토만과 야수의 엄습하지 못할 곳이라야 할 것이요, 넷째는 바다가 환하게 나타나 보여 언케든지 구조선이 보일만한 곳이라야 하리라고 생각 하였읍니다. 이 네가지 조건이 겸비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조금 높은 언덕 밑에서 원만큼 생긴 곳을 얻어 장막을 치고 그 앞에는 담을 쌓아 토만과 야수의 엄습할 것을 막고 장막은 두점

으로 하여 그 가운데 먹 것과 화약과 기녕과 의복 등속을 들여다 두고 참상은 습기가 차는 고로 매어 달게 하였으며, 이밖에 밤짓는대를 만들기와 다른 여러가지 일로 매우 오래도록 역사를 하였읍니다. 그러한 뒤에 최초로 포착하던 해변에 나무 한주를 꺾어 세우고 그면에 찬칼로 「나는 기원 일천육백 오십 구년 구월 삼십일 이 해안에 포착하였노라. 로빈소 크루 시」라고 새기고, 또 그 밑에 칼도 날마다 한마디씩 에어역서 대신으로 썼읍니다.

내 생각에는 일용기구는 무엇이든지 대강 다 정비하였거니 하였더니, 가만히 헤어본즉, 또 필묵이며 광이며 도끼며 실같은 것이 없읍니다. 그러그러나 책상과 교의와 탁자 등속은 다 손수 만들어 놓은 고로 방느림새는 그런중 할듯하게 되었읍니다.



宋完植 編

最新 日鮮大字典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十錢

- 一、字數가 가장 豊富하여 朝鮮、日本、中國의 俗字까지 無漏收
- 二、朝鮮文 訓釋을 新綴字法(統一案)으로 한것
- 三、解釋을 가장 詳細히 한것
- 四、古代의 儀器、服飾 및 動植物을 插圖한것
- 五、外國語 譯字는 原語를 對照한것
- 六、古代의 地名、山名、水名、國名等을 現今의 것과 對照한것
- 七、草書 篆書를 插入한것
- 八、音考가 있는것

〔本會로 注文하신이 에게는 二割引 提供、送料는 本會가 負擔〕

- ▲四六判五 百八十頁
- ▲印刷精麗 寫眞版
- ▲裝幀堅實 漢裝

조선어학회

제十五회 정기총회

지난 사월 십삼일 오후 네시에 본 회 제 십오회 정기총회를 서울 수표청 四二번지 본회관에서 열었다. 회록 낭독과 간사의 보고가 통과되었다. 회칙 개정 위원중 이극로씨가 개정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며, 그 대로쓰기로 가결하다.

第三條 本會의 前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左記 部署를 設치함

經理部
庶務部

會計部

出版部

圖書部

第九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

長 一人과 各部 幹事 一人씩을 設치함

一、幹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各部를 統轄함

二、經理部 幹事는 本會의 經營에

專力함

三、庶務部 幹事는 本會의 通信、記錄 其他 다른 部에 屬하지 아니한 事務를 맡음

四、會計部 幹事는 本會의 會計事務를 맡음

五、出版部 幹事는 本會의 出版事務를 맡음

六、圖書部 幹事는 本會의 文庫事務를 맡음

幹事長과 幹事는 總會에서 選舉함

前會則 第八條는 削除

이어서 임원중 투표선거하니 다음과 같다.

간사장 이희승

경리부 간사 이극로

사무부 간사 김윤경

회계부 간사 최현배

출판부 간사 이윤재

도서부 간사 방중현

신사건으로 본회 회관을 옮기기로 의논하다. 등 여섯시에 폐회하다.

준기원유회

사월 이십일일에 본회 회원이 소귀(牛耳洞)에 원유회로 모이다.

월례회

오월 십일일 오후 사시에 수표청사 십이번지 본회관에서 월례회를 열고, 최현배씨의 「용어(用言)의 줄기잡기(語幹決定)에 관한 문헌」에 대한 연제로 강연하다. 한글 강습에 관한 일은 간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다. 등 여섯시에 폐회하다.

임회

조용훈(趙鍾薰)씨 지난 오월 십일일 본회에 임회하다. 씨는 여러해 권부러 평양 한글연구회의 간부로 계시였으며 현직은 평양부 청진여자보통학교 선생이다.

소식

최현배(崔鉸培)씨 이십여년이나 장구한 세월을 오로지 한글 말본 연구에 몰두한 결과, 이제와서 우리말본이 비로소 완편되어 인쇄에 부쳐었는데, 이 책은 근 천여페이지나 되는 공권의 대저(大著)이다.

崔鉉培氏著 **중등 조선 말본** 畝八十錢

崔鉉培氏著 **우 리 말 본** 畝九十錢

金料奉氏著 **김 더 조선 말본** 畝二圓半錢

申明均氏著 **한글 歷代文選** 畝一圓

申明均氏著 **周時經先生遺稿** 畝一圓

中央印書館 **訓民正音原本** 畝二十錢

朝鮮語學會 **한글마춤법동일안** 畝二十錢

權惠奎氏著 **朝鮮語文經緯** 畝一圓

張志暎氏著 **朝鮮語綴字法講座** 畝一圓

金克培氏著 **한글鐵筆書自習書** 畝五十五錢

宋完植氏著 **最新日鮮大字典** 畝一圓半錢

◇新刊紹介

朝鮮農業論 定價一圓五十錢

崇專教授 李勳求博士 著

農業의 朝鮮을 分析 解剖한 力作。

世界名歌名曲集 定價一圓

延專教授 玄濟明氏 著

樂壇 初有의 傑作集。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한글 支社

鎮南浦三和町

光州邑

東京市品川區大井水神町

二〇七九

載寧邑日新里

鐵山邑東平洞

義州邑鄉校洞

平北七坪市

尙州邑

統營邑

高敞邑

姜 焄

崔奇一

姜鎬哲

朴周陽

李明克

劉天德

朴潤元

金成煥

金永斗

鄭德寶

陳春海

社 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서 하시는분은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定 價	
一個月	七 錢
三個月	二十 錢
六個月	四十 錢
一年	七十五 錢
代金은 반듯이 선금을 要함。	

昭和十年 六月二十日 印刷

昭和十年 六月廿三日 發行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昭和十九年六月十一日

日(第三種郵便物認可) 每月一回發行

한글 第三卷 第五號

내 옷감 다
시 다

土 產 布 木

우리의 손
로 된

◇오사 다보木廣 은屬木·다보絹造人 은屬紬◇

▲本木은 紳士 淑女の 周衣, 치마, 洋服內衣, 寢具等に 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灰色, 棕色, 柳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二十尺 一段에 特等 二圓 七十五錢, 一等 二圓 五十錢, 二等 二圓 二十五錢, 三等 二圓 이오. ▲壽木은 周衣, 치마, 學生服, 勞働服, 運動服等に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柳綠色, 銅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二十尺 一段에 上 一圓 七十五錢, 次 一圓 五十錢, 一圓 三十錢, 一圓 十錢, 九十錢이오. ▲明紬는 바지, 저고리, 周衣 치마, 와이사스等に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草綠色, 紫色, 黃色, 灰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上 九圓, 八圓, 七圓, 六圓, 次 五圓, 四圓 이오. ▲土紬는 바지, 저고리, 周衣內次, 洋服內次, 寢具等に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紫色, 黃色, 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上 五圓 二十錢, 次 四圓 八十錢, 四圓 四十錢, 四圓 이오. ▲蘭皮紬는 周衣, 치마, 洋服에 最適當하고, 染色은 黑色, 柳綠色이 잘 되고, 價格은 針尺 四十尺 一疋에 四圓 四十錢이오. ▲熟紬는 用途와 染色이 다 明紬와 같고, 價格은 大幅 (明紬의 一幅 八分) 二十七尺 一疋에 九圓 五十錢, 小幅 (明紬 同幅) 四十尺 一疋에 六圓 이오. ▲縵紬는 明紬를 小紋入 二重織한 것인데, 用途와 染色은 明紬와 같고, 價格은 大幅 (明紬의 一幅 八分) 二十七尺 一疋에 十三圓, 小幅 (明紬 同幅) 四十尺 一疋에 十圓 五十錢. ▲九羅 四十尺 一疋에 特上 十一圓 五十錢, 次 十圓, 七圓, 生紬 四十尺 一疋에 上 七圓 五十錢, 次 六圓 七十錢, 六圓, 五圓 二十錢. ▲春紗 四十尺 一疋에 上 七圓, 次 六圓 五十錢, 五圓 八十錢, 五圓 二十錢. ▲白苧 四十尺 一疋에 上 十四圓으로 六圓까지. ▲麻布 三十五尺 一疋에 上 十圓 五十錢으로 三圓 七十錢까지. ▲人字織 (세루代用) 夏洋服地 一件에 九圓. ◇地方送料 一疋 (一段은 一疋과 同) 에 三十四錢, 二疋 四十七錢, 三疋 六十錢, 四疋 七十三錢, 五疋 七十九錢, 六疋 八十五錢, 五疋 二圓 五十錢, 百疋 三圓 (染色한 것은 一疋 或은 一段에 三十錢씩 增함)

京洞 城三 府百 樂番 園地 獎 產 社 電振 話替 光京 化城 門一 一〇九 三九 一五 九七 番番